

#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귀인성향의 조절효과

조진실\* · 강민주\*\*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율성지지 정도가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 있어 귀인성향(내적, 타인, 우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데이터스프링코리야를 통해 모집된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308명(남학생 153명, 여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하여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4를 이용하여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분석을 위한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고, 변인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여 측정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와 귀인성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율성지지는 귀인성향의 내적귀인, 진로 성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귀인성향의 내적귀인과 진로성숙도는 정적 상관을, 귀인성향의 타인귀인과 우연귀인은 진로성숙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어머니의 자율성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타인귀인과 우연귀인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타인귀인 또는 우연귀인 성향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자율성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율성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귀인성향(내적, 타인, 우연)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하여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개인의 귀인성향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청소년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진로성숙도, 부/모의 자율성지지, 귀인성향, 고등학생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교신저자, [mjkang@yonsei.ac.kr](mailto:mjkang@yonsei.ac.kr)

## I. 서론

진로는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체험을 통해 진로 선택 이후의 삶에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기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게 되는 탐색기에 해당하므로(Super, 1955)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과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진로태도를 확립하여 발달 과업을 이루어야 한다(Erikson, 1968). 그렇기에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위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 치열한 삶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박희현, 조은주,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에서 보고한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희망 진로 결정여부를 살펴본 결과 약 38.7%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로 성적 부담과 같은 학업 문제(39.8%) 다음으로 진로에 대한 불안(25.5%)이 2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아 많은 고등학생들이 희망 진로 결정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희망하는 진로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30.0%), 공무원(12.6%), 교사(12.4%) 순서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진로 선택에 있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희망 진로가 있는 경우 중 다수가 특정한 희망 직종이 없거나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시대는 직업 세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미래에는 사무직과 전문직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을 가지는 대신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며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Schwab, 2017).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은 시대의 변화 속도를 인지하고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성숙한 진로 선택 능력이 요구된다(박수용, 2018).

진로발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자녀가 심리적 좌절을 극복하게끔 그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켜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한다(구승신, 정옥희, 장성화, 2011).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은 자율성뿐만 아니라 유능성도 함께 활성화시키는데, 특히 부모로부터

의 자율성 지지는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한다(Ryan & Deci, 2000).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지각된 자율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성숙한 진로태도를 포함하는 다양한 진로발달 관련 변인과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김양희, 이우걸, 2017; 한동헌, 서영정, 조영아, 2019). 특히 부모가 청소년의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환경은 그들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배선연, 2017). 즉, 청소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수용되고 이해받는다느 느낌을 갖는 것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박사휴, 2013).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부와 모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자신감(김현진, 2012) 또는 학교생활 적응(장경문, 2011)등에 정도가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의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의 영향을 분리시켜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율성지지가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조사하였다.

진로발달은 개인의 행동과 사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개인의 귀인성향을 인지하는 것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적 귀인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이는 반면, 외적 귀인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진로성숙도를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장문영, 2005; 정미나, 엄정혜, 성버리, 양은주, 2011).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귀인성향과 진로성숙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구체적으로 진로와 관련해서 개인의 귀인성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부모나 상담자들이 어떤 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귀인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개인의 귀인성향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진로탐색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율성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귀인성향의 하위요인(내적, 타인, 우연)은 각각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둘째, 아버지의 자율성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귀인성향의 하위요인(내적, 타인, 우연)은 각각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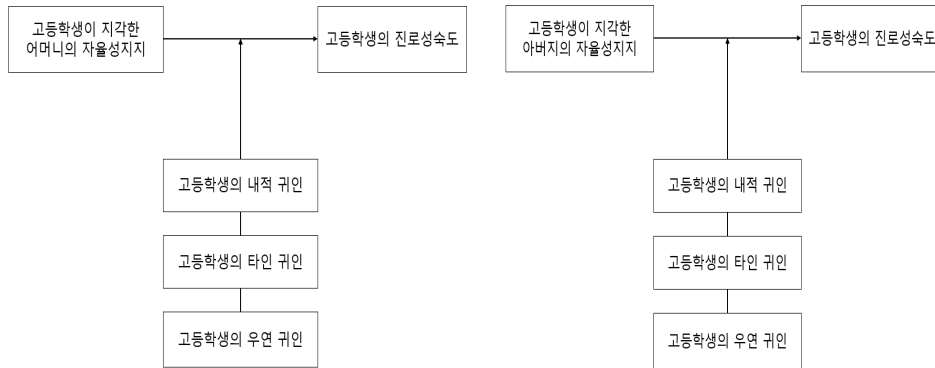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자율성지지 연구모형

그림 2.  
아버지의 자율성지지 연구모형

## II. 선행연구 고찰

### 1.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진로는 개인이 일생 동안 수행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진로에 대한 만족은 개인의 삶에서 얻는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생애주기에 서 청소년기는 진로관련 의식 및 태도 발달의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는데(Super, 1990), 이는 청소년들의 진로목표 설정과 성취가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돕고 부적응적 인 행동의 예방을 넘어서서 향후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심, 주석진, 20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기학과 한종철(1997) 역시 청소년들이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만족하기 위해서 직업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 한 진로결정은 삶의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개인이 선택한 진로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 사회경제적인 지위, 가치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등의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Tolbert, 1980). 즉, 미래의 합리 적인 진로 결정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진로에 대한 확신으

로 이루어지므로(성경주, 조지용, 2017) 성숙한 진로 태도를 갖추는 것은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증진을 위해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적용한 적절한 진로교육 및 상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진로성숙도는 진로선택이나 계획에 있어서의 준비도(Gribbons & Lohnes, 1964) 또는 개인이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한 바탕 위에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결정, 이행하는 정도(양수만, 박영호, 2008)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전생애 과정을 통하여 개인이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에 따른 진로를 탐색해 나가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고려되어 왔으며, 자율성 획득은 건강한 성격 발달 및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청소년 시기의 주요 발달 과제 중 하나이다(Erikson, 1968). 자율성은 개인의 행동, 감정, 대인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자녀들은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겪음과 동시에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이전과 비교하여 부모에 순종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의사결정권을 보다 더 많이 갖기를 소망한다(Chen & Jang, 2010). 청소년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환경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고 흥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관심목표를 탐색할 수 있게 하며(허정철, 2017),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자기주도성을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 주어진 외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한다(이희란, 2012). 따라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환경은 그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진로 영역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자녀의 진로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자녀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박사휴, 2013; 안미경, 유금란, 2013; 배선연, 2017; 이혜지, 2013; 정미나, 노자은, 2016; Guay, Ratelle, Sen, Larose

& Desc, 2006)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자녀가 성숙한 진로 태도를 갖는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스스로 의사결정 하도록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태도를 보일 때, 청소년 자녀들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능감을 느끼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더 많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성숙한 진로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한 데 묶기보다 나누어 각각의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되면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재조명되고 있으며(현정환, 오경희, 2008), 아동초기의 아버지와 접촉과 경험이 후기발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안수미, 2013). 아버지의 자율성 지지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확인한 연구결과가 있으며(김고은, 조남익, 2017), 청소년들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높은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자신감에서 아버지의 자율성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머니보다 다소 큰 것으로 보고된 연구 결과도 있다(김현진, 2012). 보다 자세히 이현림과 김순미(2007)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지가 청소년의 성숙한 진로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지각된 부모 지지는 남학생의 진로의식성숙에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여학생은 아버지의 영향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혜은(2008)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율성지지를 독립적으로 나누어 자녀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기제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율성지지로 나누어 이들의 영향을 독립적으로 살펴보았다.

### 3. 귀인성향과 진로성숙도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 사건 및 결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나름의 해석을 하고자 한다. Heider(1958)는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에 두는 것(내적 요인) 또는 환경에 두는 것(외적 요인)에 따라 행동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후, Levenson(1981)은 외적귀인을 타인귀인과 우연귀인으로 분류하여 타인귀인을 보상이 자신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타인의 힘에 의해 기인된다고 믿

는 귀인 성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결과 또는 보상이 행운이나 우연에 의해 발생되어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을 우연귀인이라고 하였다(김민정, 2011). 본 연구에서는 Levenson(1981)이 제시한 내적, 타인, 우연 귀인의 세 차원을 귀인성향에 대한 개념 구조로 보고 분석에 적용하였다.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이처럼 개인 행동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귀인성향의 독립적인 영향을 진로행동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Brown & Lent, 1996). 그 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귀인성향은 여러 변인들과 함께 진로결정수준(이현주, 2000), 진로장벽(이성식, 정철영, 2007) 등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귀인성향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박용섭(2003)의 연구결과, 내적 귀인성향과 진로성숙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타인과 우연 귀인성향과 진로성숙도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내적통제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기학, 한종철, 1998; Coertse & Schepers, 2004; Brown, 1999). 즉,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원인에 대한 해석을 자신이 통제가능한 내적 요소에 기인할수록 진로문제에 있어 능동적이고 성숙한 진로태도를 보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요소에 기인할수록 진로 문제에 있어 수동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Janeiro, 2010). 그러나 이민자(2017)에 따르면 귀인성향의 하위유형인 내적귀인, 타인귀인, 우연귀인은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성식과 정철영(2007)의 연구에서는 내외통제성이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이한 연구 결과는 귀인성향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대한 기제에 대해 보다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4.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귀인성향의 조절효과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기초하면 부모의 자율성지지, 귀인성향 그리고 진로성숙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으나,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위 관계에서 귀인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비슷한 맥락의 선행 연구로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상황적 제약과 취업스

트레스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권성은과 안진아(2020)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진로통제 소재의 하위요인인 내적통제성과 타인귀인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다시 말하면, 내적통제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상황적 제약 지각이 높아질수록 이들의 진로적응성이 감소하였고 타인영향력을 적게 지각하는 집단은 상황적 제약 지각이 낮을 때 진로적응성이 더욱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진로적응성 증진에 내적통제성(내적귀인)이 조절변인으로서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윤동춘(2019)은 개인이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원인이 생활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귀인양식이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행동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타인귀인 또는 우연귀인은 개인의 진로성숙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청소년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귀인성향의 조절효과를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청소년 자녀의 귀인성향을 독립적인 관계로 보았다. 우선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청소년 자녀의 귀인성향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추후 연구의 축적을 통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비슷한 맥락에서 송경희, 송주현, 백지현, 이승연(2009)은 부모의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귀인성향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가 그들의 내적귀인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또한 아버지의 온정적, 수용적 태도 또한 내적귀인과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개인의 귀인성향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는 귀인성향을 조절변인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즉,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율성지지 정도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 사이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서치 업체인 데이터스프링코리아를 통해 설문에 대한 설명을 읽고 동의한 고등학교 1, 2,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였으며, 자기보고식 설문을 하여 수집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설문은 2020년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유효표본 총 30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연구 대상의 수는 남학생 153명(49.7%)과 여학생 155명(50.3%), 학년별 연구 대상 수는 1학년 104명(33.8%), 2학년 103명(33.4%), 3학년 101명(32.8%)이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은 모두 5점 자기보고식 척도로 ‘전혀 아니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 1)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율성지지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Grolnick, Ryan 및 Deci(1991)가 개발한 부모에 대한 지각척도(Perceptions of parents scale) 중 자율성지지 문항과 Williams와 Deci(1996)가 개발한 학습풍토 질문지 중에서 자율성지지 문항을 토대로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노보혜, 박성연과 지연경(2011)의 부모의 자율성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부모의 자율성지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묻는 검사로 총 24개 문항으로 아버지에 대한 응답(12문항), 어머니에 대한 응답(12문항)을 각각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율성지지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0, 아버지의 자율성지지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귀인성향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귀인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Levenson(1981)이 개발한

귀인성향 척도를 안귀덕(1986)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내적귀인, 타인귀인, 우연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별 8개 문항씩 총 24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의 귀인성향의 Cronbach's  $\alpha$ 는 내적귀인 .73, 타인귀인 .77, 우연귀인 .75로 나타났다.

### 3) 진로성숙도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진로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성숙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진로선택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로 결정성(10문항), 독립성(9문항), 목적성(8문항), 확신성(10문항), 준비성(10문항)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 총점(47문항)를 사용했으며, Cronbach's  $\alpha$ 는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분산팽창지수(VIF)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귀인 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종속 변수의 자기상관 여부를 Durbin-Watson 지수로 확인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부모의 자율성지지, 귀인성향 및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부모의 자율성지지 정도와 고등학생의 귀인성향 및 진로성숙도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Pearson의 적률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표 1). 우선,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아버지의 자율성지지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56, p<.001$ ). 어머니의 자율성지지는 내적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r=.26, p<.001$ ), 아버지의 자율성지지 또한 내적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35, p<.001$ ). 이를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의 정도가 각각 높을수록 내적귀인의 정도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타인귀인만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r=-.20, p<.001$ ) 나타났고, 그 외에 어머니, 아버지의 자율성 지지와 타인, 우연귀인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율성지지( $r=.25, p<.001$ ) 와 아버지의 자율성 지지( $r=.22, p<.01$ )는 진로성숙도와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진로성숙도는 내적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r=.23, p<.001$ )을 보인 반면, 타인 귀인( $r=-.49, p<.001$ )과 우연귀인( $r=-.37, p<.001$ )은 진로성숙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모든 변수들의 VIF값이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모든 변수들의 Durbin-Watson 계수는 최대 2.3미만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진로성숙도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성을 통제변인으로 하지 않았다.

표 1  
측정 변인들 간의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 $N=308$ )

|             | 1       | 2      | 3      | 4       | 5       | 6 | <i>M</i> | <i>SD</i> |
|-------------|---------|--------|--------|---------|---------|---|----------|-----------|
| 1. 모의 자율성지지 | -       |        |        |         |         |   | 3.62     | .85       |
| 2. 부의 자율성지지 | .56***  | -      |        |         |         |   | 3.76     | .73       |
| 귀 3. 내적귀인   | .35***  | .26*** | -      |         |         |   | 3.73     | .52       |
| 인 4. 타인귀인   | -.20*** | -.09   | -.04   | -       |         |   | 2.89     | .64       |
| 성 5. 우연귀인   | -.03    | -.01   | .07    | .62***  | -       |   | 3.16     | .59       |
| 향 6. 진로성숙도  | .25***  | .16**  | .23*** | -.49*** | -.37*** | - | 3.20     | .38       |

\*\* $p < .01$ , \*\*\* $p < .001$ .

## 2.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의 조절효과

## 1)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내적귀인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내적귀인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표 2 참조).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어머니의 자율성지지( $\beta=.19$ ,  $p<.01$ )와 내적귀인( $\beta=.17$ ,  $p<.01$ )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8.7%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자율성지지는 내적귀인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1$ , ns). 따라서 진로성숙도에 대한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내적귀인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내적 귀인의 조절효과

| 변인            | B    | $\beta$ | $t$    | $F$      | $R^2$ |
|---------------|------|---------|--------|----------|-------|
| 자율성지지(모)      | .10  | .19     | 3.28** | 14.46*** | .087  |
| 내적귀인          | .12  | .17     | 2.85** |          |       |
| 자율성지지(모)      | .10  | .19     | 3.28** | 9.61***  | .087  |
| 내적귀인          | .13  | .17     | 2.78** |          |       |
| 자율성지지(모)×내적귀인 | -.01 | -.01    | -.13   |          |       |

\*\* $p<.01$ , \*\*\* $p<.001$ .

## 2)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타인귀인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타인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표 3).

표 3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타인 귀인의 조절효과

| 변인       | B    | $\beta$ | $t$      | $F$      | $R^2$ |
|----------|------|---------|----------|----------|-------|
| 자율성지지(모) | .08  | .16     | 3.15**   | 55.51*** | .267  |
| 타인귀인     | -.28 | -.46    | -9.23*** |          |       |

| 변인            | B    | $\beta$ | <i>t</i> | <i>F</i> | <i>R</i> <sup>2</sup> |
|---------------|------|---------|----------|----------|-----------------------|
| 자율성지지(모)      | .10  | .20     | 3.84***  | 41.08*** |                       |
| 타인귀인          | -.26 | -.43    | -8.45*** |          | .288                  |
| 자율성지지(모)×타인귀인 | -.09 | -.15    | -3.04**  |          |                       |

\*\**p*<.01, \*\*\**p*<.001.

1단계에서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beta=.16$ ,  $p<.01$ ) 타인귀인( $\beta= -.46$ ,  $p<.001$ )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26.7%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자율성지지는 타인귀인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고( $\beta= -.15$ ,  $p<.01$ ), 설명력은 28.8%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율성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타인귀인성향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림 3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이는 높은 타인귀인 수준을 보이는 경우, 어머니의 자율성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축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우연귀인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우연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표 4).

표 4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우연 귀인의 조절효과

| 변인            | B    | $\beta$ | <i>t</i> | <i>F</i> | <i>R</i> <sup>2</sup> |
|---------------|------|---------|----------|----------|-----------------------|
| 자율성지지(모)      | .13  | .24     | 4.65***  |          |                       |
| 우연귀인          | -.23 | -.36    | -7.01*** | 36.34*** | .192                  |
| 자율성지지(모)      | .13  | .26     | 4.96***  |          |                       |
| 우연귀인          | -.21 | -.32    | -6.13*** | 26.88*** | .021                  |
| 자율성지지(모)×우연귀인 | -.01 | -.14    | -2.57*   |          |                       |

\**p*<.05, \*\*\**p*<.001.

1단계에서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beta=.24, p<.001$ ) 우연귀인( $\beta= -.36, p<.001$ )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19.2%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우연귀인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beta= -.14, p<.05$ ), 상호작용항을 포함했을 때 진로성숙도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2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율성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우연귀인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림 4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이는 높은 우연귀인 수준을 보이는 경우, 어머니의 자율성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축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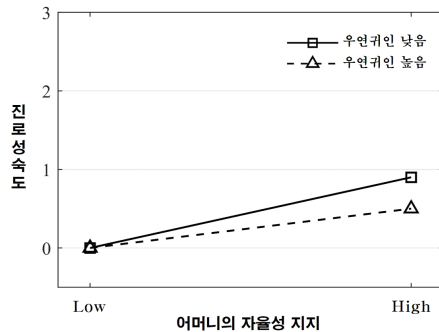


그림 3.

자율성지지(모)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타인귀인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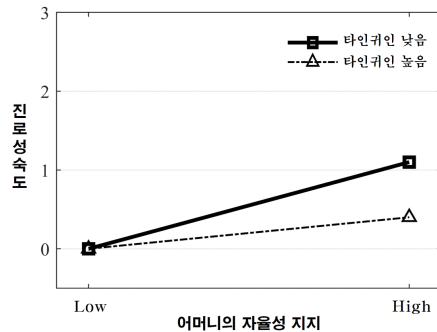


그림 4.

자율성지지(모)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우연귀인의 조절효과

### 3.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의 조절효과

#### 1)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내적귀인의 조절효과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내적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5).

표 5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내적귀인의 조절효과

| 변인            | B    | $\beta$ | <i>t</i> | <i>F</i> | $R^2$ |
|---------------|------|---------|----------|----------|-------|
| 자율성지지(부)      | .05  | .11     | 1.89     | 10.63*** | .065  |
| 내적귀인          | .15  | .21     | 3.57***  |          |       |
| 자율성지지(부)      | .05  | .11     | 1.90     | 7.21***  | .065  |
| 내적귀인          | .15  | .20     | 3.31**   |          |       |
| 자율성지지(부)×내적귀인 | -.03 | -.04    | -.63     |          |       |

\*\* $p < .01$ , \*\*\* $p < .001$ .

1단계에서 내적귀인( $\beta = .21$ ,  $p < .001$ )만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아버지의 자율성지지는 내적귀인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4$ , ns).

## 2)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타인귀인의 조절효과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타인귀인 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표 6).

표 6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타인귀인의 조절효과

| 변인            | B    | $\beta$ | <i>t</i> | <i>F</i> | $R^2$ |
|---------------|------|---------|----------|----------|-------|
| 자율성지지(부)      | .05  | .12     | 2.40*    | 52.77*** | .257  |
| 타인귀인          | -.29 | -.48    | -9.74*** |          |       |
| 자율성지지(부)      | .06  | .12     | 2.49*    | 35.43*** | .257  |
| 타인귀인          | -.29 | -.49    | -9.77*** |          |       |
| 자율성지지(부)×타인귀인 | -.03 | -.05    | -.91     |          |       |

\* $p < .05$ , \*\*\* $p < .001$ .

1단계에서 아버지의 자율성지지( $\beta=.12$ ,  $p<.05$ )와 타인귀인( $\beta= -.48$ ,  $p<.001$ )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25.7%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아버지의 자율성지지는 내적귀인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05$ , ns).

### 3)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우연귀인의 조절효과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우연귀인 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표 7).

표 7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우연귀인의 조절효과

| 변인            | B    | $\beta$ | $t$      | $F$      | $R^2$ |
|---------------|------|---------|----------|----------|-------|
| 자율성지지(부)      | .07  | .16     | 3.07**   | 29.27*** | .167  |
| 우연귀인          | -.24 | -.37    | -7.00*** |          |       |
| 자율성지지(부)      | .08  | .17     | 3.27**   | 20.27*** | .167  |
| 우연귀인          | -.24 | -.37    | -7.11*** |          |       |
| 자율성지지(부)×우연귀인 | -.05 | -.08    | -1.44    |          |       |

\*\* $p<.01$ , \*\*\* $p<.001$ .

분석결과, 1단계에서 아버지의 자율성지지( $\beta=.16$ ,  $p<.01$ )와 우연귀인( $\beta= -.37$ ,  $p<.001$ )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16.7%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아버지의 자율성지지는 우연귀인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08$ , ns).

##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율성지지 정도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귀인성향의 하위 요인인 내적, 타인, 우연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율성지지, 귀인성향(내적, 타인, 우연),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율성지지를 각각 높게 인식할수록 내적귀인성향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인귀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자율성지지를 많이 인식할수록 타인귀인성향을 적게 보였고 우연귀인과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가 성숙한 진로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들(정미나, 노자은, 2016; 정은교, 안도희, 2018; Keller & Whiston, 2008; 이지연, 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남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보고한 안미경과 유금란(2013)의 연구가 맥을 같이 한다. 즉,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율성 지지는 고등학생 자녀들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행동에 따른 결과에 책임감을 가지며 자신의 목표에 확신하고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조장하여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하므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고등학생 자녀들이 성숙한 진로태도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모양육태도라는 것을 주장한 이주아(2020)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스스로 의사결정 하도록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태도를 보일 때, 청소년 자녀들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능감을 느끼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더 많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성숙한 진로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성인 초기로의 전환을 앞둔 청소년기 자녀들이 성숙한 진로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등학생들이 진로성숙도는 귀인성향의 하위요소 중 내적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진로성숙도와 타인귀인, 우연귀인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고등학생이 내적귀인 성향을 더 많이 보일수

록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이며, 반대로 타인, 우연 귀인 성향을 더 많이 보일수록 낮은 진로성숙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행동 또는 사건에 대한 원인을 자신 내부의 요인에서 찾는 성향은 성숙한 진로태도와 관련되며 동일한 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요인에서 찾는 성향은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진로태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귀인성향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선행연구들과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내적귀인성향과 적극적이고 성숙한 진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반대로 타인귀인성향은 진로태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owell & Luzzo, 1998, Coertse & Schepers, 2004; 전희정, 이순덕, 2019; 손은령, 2006; 안정숙, 2002; 박용섭, 2003).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이 부모의 자율성지지를 통해 얻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자유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행동과 주변 사건의 원인을 통제 가능한 자기 내부의 요인으로 지각할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해 능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귀인성향을 내적, 타인, 우연 귀인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본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다. 이민자(2017)는 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적, 타인, 우연 귀인 모두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김민정(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적귀인과 진로효능감 사이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타인과 우연 귀인에서 부적관계를 보고하였는데 그 중 우연 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나 결과의 원인을 어디에 기인하는지가 성숙한 진로태도를 가지는 것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귀인성향의 하위유형 중 타인귀인과 우연귀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의 조절효과를 귀인성향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의 하위요인인 타인귀인과 우연귀인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의 모든 하위요인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타인 또는 우연귀인 수준이 높은

경우, 타인 또는 우연귀인 수준이 낮은 경우와 비교하여 어머니의 자율성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본래의 정적인 영향을 축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귀인 또는 우연귀인을 덜 하는 경우,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힘을 발휘하기에 자율성 지지와 더불어 청소년들은 타인귀인, 우연귀인을 덜 하는 것이 진로성숙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어머니와 비교하여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만이 다문화 청소년 자녀의 진로적응성에 있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한 김명숙, 이미현(2019)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진로적응성 증진에 내적통제성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권성은과 안진아(2020)의 연구 역시 본 연구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고등학생들이 진로성숙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지지받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자율적인 양육환경을 제공받은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타인 또는 우연에 기인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성숙한 진로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의 귀인성향을 고려한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상담프로그램 개발에 실제로 적용되어져왔다. 그 예로, 국외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외적 귀인양식을 감소시키는 재귀인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가 진로탐색행동 참여를 촉진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Darrell, Tammy & Marilyn, 1996; Szabo, 2006). 또한 류미경과 김재철(2016)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통제가 불가능한 과제 대신 통제가 가능한 과제에 전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성숙한 진로태도를 형성하는 것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취지는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 또는 자신 및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기인하는 외적귀인방식(타인, 우연귀인)을 축소시켜 진로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버지와 비교하여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에서만 진로성숙도에 대하여 타인, 우연귀인의 조절 효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귀인성향이 관련이 없다고 해석하기보다 어머니-자녀 관계가 보다 밀착된 한국사회의 특성상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관련한 연구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으며(Otto, 2000),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진로성숙에서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희영(1999)는 고등학생이 어머니로부터 건강한 심리적 독립 및 분리를 할 때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혜윤, 이동혁, 박혜성, 이송하(2020)는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진로관련대화가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자율성지지가 청소년 자녀의 진로성숙도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의 영향을 부모 변인으로 한 데 묶기보다 분리하여 각각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삶에 더 많이 개입되어 있을 때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Capuozzo et al., 2010). 노혁(2006)은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교 2학년 자녀의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으며 홍춘희(1994) 역시 아버지의 직업과 교육수준, 수입정도, 인생관 등의 요인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내적귀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들을(장명옥, 1992; 신혜경, 1989) 미루어보았을 때,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와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귀인성향이 갖는 의미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연구대상들 중에서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통해 임의 표집한 것이나, 각 연구대상의 고등학교 소재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조사하지 못하여 소재지에 따른 차이검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이나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학교에 대해 지역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그들이 재학 중인 학급 및 전공계열의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율성지지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부모-자녀 대화 시간 또는 대화의 질적인 측면, 부모가 양육에 개입한 시간, 활동 및 태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청소년 개인이 인식하는 부모의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 역시 더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

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학생 비율 및 관계의 질, 진로교육 경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등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변인을 포함시켜 그것들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교 진학 또는 직업 선택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정하거나 준비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하여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이 갖는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타인귀인과 우연귀인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어머니의 자율성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축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대상 진로성숙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개인의 귀인성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타인귀인 또는 우연귀인을 많이 하는 학생들에 주목하여 그들의 귀인양식에 적합한 진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하여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개인의 귀인성향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구승신, 정옥희, 장성화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225-237. doi:10.5392/JKCA.2011.11.9.225
- 권성은, 안진아 (2020). 취업준비생의 지각된 상황적 제약과 취업스트레스 간 관계: 진로 적응성의 매개효과와 진로통제소재의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33(2), 67-88. doi: 10.32341/JCER.2020.6.33.2.67
- 김고은, 조남익 (2017).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 동기와 행동 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7), 191-213. doi:10.21509/KJYS.2017.06.24.7.191
- 김민정. (2011). 귀인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진로교육연구**, 24(2), 139-154.
- 김양희, 이우걸 (2017).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스트레스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동기가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23(4), 183-204. doi:10.29318/KER.23.4.8
- 김현진 (2012).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남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보혜, 박성연, 지연경 (2011).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2(4), 83-97.
- 류미경, 김재철 (2016). 고등학생의 진로 불확실성 수용과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수용 전념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23(1), 1-28. doi:10.21509/KJYS.2016.01.23.1.1
- 박사휴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수용 (2018).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로교육. **한국비즈니스연구**, 2(1), 1-11.
- 박용섭 (2003). **중학생의 성취동기와 귀인성향 및 진로성숙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희현, 조은주 (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과 희망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한국놀이치료학회**, 15(4), 515-533.

- 배선연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경주, 조지용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학습습관이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21(3), 159-173.
- 손은령 (2006). 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진로행동. **상담학연구**, 7(3), 819-835.
- 신혜경 (1989). **양육태도 성취동기 및 귀인성향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귀덕 (1986). **귀인성향, 지각학급풍토 및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학습태도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미경, 유금란 (2013). 부모의 진로 및 자율성 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9), 73-9.
- 안수미 (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정숙 (2002). **고등학생의 귀인성향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지인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부적응과의 관계: 내적통제성 조절효과**.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 이기학, 한종철 (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67-189.
- 이민자 (2017). **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식, 정철영.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4), 83-109.
- 이주아 (2020).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구조제공이 자녀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연 (2013).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6), 219-241.

- 이혜지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도와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란 (2012). **부모의 자율성 지지 및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영 (199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 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 관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239-259.
- 장경문 (2011).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가 남녀 초등학교의 자존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2), 243-261.
- 장명옥 (1992). **지각된 부의 수용-거부 태도와 통제 귀인성향과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문영 (2005).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귀인성향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희정, 이순덕 (2019). 여자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의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7(11), 577-587.
- 정미나, 노자은 (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doi:10.14816/sky.2016.27.3.133
- 정미나, 엄정혜, 성벼리, 양은주 (2011). 청소년의 심리적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의 차이: 내외통제성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3), 359-377.
- 정은교, 안도희 (2018). 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 대한 진로통제소재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6(4), 133-152.
- 정혜윤, 이동혁, 박혜성, 이송하 (2020).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진로대화 상호작용 연계분석. **청소년학연구**, 27(1), 143-166. doi:10.21509/KJYS.2020.01.27.01.143
- 조성심, 주석진 (2011). 생태체계관점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5), 61-81.
- 통계청 (2019). **김해시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장래희망 직업**. 김해: 김해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및 이유**.
- 한동현, 서영정, 조영아 (2019).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 19-43.

- 허정철 (2017).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인식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1), 70-81.
- 현정환, 오경희 (2008). 최근 한국 아버지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8(3), 105-121.
- Brown, B. L. (1999). Self-Efficacy Beliefs and Career Development. ERIC Digest No. 205.
- Capuozzo, R. M., Sheppard, B. S., & Uba, G. (2010). Boot camp for new dads: The importance of infant-father attachment. *Young Children*, 65(3), 24-28.
- Chen, K. C., & Jang, S. J. (2010). Motivation in online learning: Testing a model of self-determination theor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4), 741-752. doi:10.1016/j.chb.2010.01.011
- Coertse, S., & Schepers, J. M. (2004). Some personality and cognitive correlates of career maturity. *SA Journal of Industrial Psychology*, 30(2), 56-73. doi:10.4102/sajip.v30i2.150
- Crites, J. O. (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3), 255. doi:10.1037/h0048519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Co.
-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08-517. doi:10.1037/0022-0663.83.4.508
- Gibbons, W. D., & Lohnes, P. R. (1964).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readiness for vocational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1), 13. doi:10.1037/h0044801
- Guay, F., Ratelle, C. F., Senécal, C., Larose, S., & Deschênes, A. (2006). Distinguishing developmental from chronic career indecision: Self-efficacy, autonom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2), 235-251. doi:10.1177/1069072705283975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doi:10.1037/10628-000

- Janeiro, I. N. (2010). Motivational dynamics in the development of career attitud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2), 170-177. doi:10.1016/j.jvb. 2009.12.003
- Keller, B. K., & Whiston, S. C. (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2), 198-217. doi:10.1177/1069072707313206
- Levenson, H. (1981). Differentiating among internality, powerful others, and chance.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Vol 1, Assessment methods, New York: Academic Press, 15-63. doi:10.1016/b978-0-12-443201-7.50006-3
- Luzzo, D. A., James, T., & Luna, M. (1996). Effects of attributional retraining on the career beliefs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415. doi:10.1037/0022-0167.43.4.415
- Otto, L. B. (2000). Youth Perspectives on Parental Career Influenc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2), 111-118. doi:10.1177/089484530002700205
- Powell, D. F., & Luzzo, D. A. (1998). Evaluating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2), 145-158. doi:10.1002/j.2161-0045.1998.tb00548.x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 doi:10.1037/h0092976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 doi:10.1037/0003-066x.55.1.68
- Schwab, Klaus. (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
-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Szabo, Z. (2006). The influence of attributional retraining on career choices. *Journal of Cognitive & Behavioral Psychotherapies*, 4(2), 89-103.
-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Univ. Press.
- Williams, G. C., & Deci, E. L. (1996). Internalization of biopsychosocial values by medical student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67. doi:10.1037/0022-3514.70.4.767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aternal and paternal autonomy support and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attribution style

Jo, Jinsil\* · Kang, Min Ju\*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attribution style(internal, powerful others, chance attribu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aternal/paternal autonomy support and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self-reported data of 308(153 boys, 155 girls) high school students(10, 11, 12th grade) were collected through Dataspring Korea and were analyz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oth maternal and paternal autonomy support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high school students' internal attribution and career maturity. Internal attribu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maturity while powerful others and chance attribu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adolescents' career maturity.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attribution style(powerful others and chance attribution)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career maturity. In other words, the positive effect of maternal autonomy support on career maturity was relatively diminished among the adolescents who had a higher incidence of powerful others or chance attribution. The findings show the important roles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attribution style on the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and these results may be profitably applied when developing career educa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Key Words: career maturity, maternal/paternal autonomy support, attribution style, high school students

투고일: 2020. 12. 7, 심사일: 2021. 3. 8, 심사완료일: 2021. 3. 17

---

\* Yonsei University